

# 안수길의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 <제2의 청춘>을 중심으로

김 동 윤\*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전후사회의 세대와 일상 |
| II. 작품의 개요와 구도                | V. 안수길 신문소설의 성격  |
| III. 중년의 감각과 사랑 그리고 여성의 자기 인식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안수길은 1935년 『조선문단』 복간 기념 현상문예에 단편 <적십자병원장>과 콩트 <붉은 목도리>가 동시에 당선된 이후 1977년 작고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작품활동을 전개한 작가다. 그는 25편 정도의 장편을 포함하여 100여 편에 달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에 대한 연구도 적잖이 이루어져 온 편이다.<sup>1)</sup> 하지만 그동안에 전개된 여러 논자들의 논의 중심은 주제상으로는 만주체험과 민

\* 제주대학교 강사

1) 김윤식, 『안수길 연구』(정음사, 1986); 최경호, 『안수길 연구』(형설출판사, 1994); 이상경 외, 『특집 안수길』, 『작가 연구』 제2호(새미, 1996); 박은숙, 『안수길 소설 연구: 만주체험 소설을 중심으로』(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등이 안수길 문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저다.

족주의적 특성 등에, 작품상으로는 <북간도>나 <제3인간형>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쏠림 현상은, 이 작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당연하다고도 하겠지만, 긍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적지 않은 신문소설을 연재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소설에 초점을 둔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최경호의 『안수길 연구』가 <제2의 청춘>이나 <부교>에 다소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신문소설로서의 성격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실향민문제로 축소하여 논의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주된 요인은 연구자들이 신문소설의 통속적 성격에 주목한 데에 있지 않을까 한다. 통속적인 작품이니 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했듯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통속적이라고 몰아가서도 곤란하며, 실사 통속적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안수길의 문학 전반에서 볼 때 특히 1950년대 신문소설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판단된다. 그가 신문소설을 본격적으로 집필하던 시기가 이때부터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sup>2)</sup> 서울에 정착하여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려가던 그의 면모가 반영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up>3)</sup> 다시 말하자면, 안수길은 “40여 년의 작가 생활 중 직장을 가졌던 기간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sup>4)</sup>한바 신문소설 연재는 그의 생활에서 요긴한 수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만큼 그의 삶과 일상에서도 신문소설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울러 안수길의 생애를 통틀어 볼 때, 전반기는 함흥과 만주, 후반기는 서울이 삶의 터

2) <벼>(1941)는 『만선일보』에 발표한 작품이지만 중편이었고, 같은 지면에 5개월 동안 연재한 <북향보>(1944~45)는 신문소설의 일반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안수길이 본격적인 신문소설을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로 볼 수 있다.

3) 1911년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태어난 안수길은 6세 때 홍남 서호리로 이주하였다가, 14세가 되던 1924년부터 2년 동안 만주 생활을 한다. 그리고 1926년부터 5년 동안 함흥, 서울, 일본의 교토와 도쿄 등지를 학업으로 인해 전전하다가, 1931년(21세)에 만주로 돌아가 1945년(35세)까지 만주에서 거주하였다. 1948년(38세) 월남하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6·25전쟁으로 인해 대구와 부산에서 피난생활과 해군 근무를 하다가 1954년 환도하여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4) 최경호, 앞의 책, 41쪽.

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수길 문학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면에서 서울 생활과 관련된 작품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채, 만주(<북간도>·<북향보> 등)와 관북지방(<통로>·<성천강> 등) 또는 피난지(<제3인간형> 등)와 관련된 작품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왔다. 따라서 1950년대 안수길의 신문소설에 대한 고찰은 안수길의 작품세계를 좀더 밀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안수길의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으로 <제2의 청춘>을 선택했다. 이 작품은 그가 중앙일간지에 연재한 첫 장편소설<sup>5)</sup>일 뿐만 아니라 연재 직후 단행본으로 출간<sup>6)</sup>되었으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작품’<sup>7)</sup>이기 때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신문소설을 집필하는 데 따른 태도를 살피는 데 적합한 작품임과 아울러 대중성까지 확보한 작품이기에 그 고찰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안수길 문학에서 신문소설이나 서울에서의 삶을 반영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그 적잖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2의 청춘>을 분석하였다. 우선 개요와 구도를 검토한 후, 작가가 비중 있게 형상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년세대의 사랑, 여성의 자기인식, 전후사회의 세태와 일상 등을 살피고, 나아가 안수길 신문소설의 특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신문소설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조선일보』 연재본을 택하였다.

5) 안수길은 1955년 <화환>을 『서울신문』에 연재한 적이 있으나 이는 1954년 『대구일보』에 연재했던 <먼 후일>의 개작이다. 1956년 3월부터 『동아일보』에 발표하던 <가장행렬>은 작가의 신병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안수길 연보』, 『작가 연구』, 앞의 책, 165쪽 참조.

6) 안수길, <제2의 청춘>(일조각, 1958)

7) 최경호, 『안수길 연구』(형설출판사, 1994), 46쪽에 “이 소설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는 언급이 있다.

## II. 작품의 개요와 구도

<제2의 청춘>은 1957년 9월 17일부터 1958년 6월 14일까지 『조선일보』 지면에 270회 연재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두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장별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안은 신문연재 횟수를 말함).

①꽃다발(1~10회): 『부인화보』 사장 엄택규는 버스에서 한 아가씨가 봉변당할 뻔 하자 막아준 후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 간다. 곧 그녀가 아들 때린 학생의 고모라며 방문한다. 치료비용수증을 주고 가는 그녀를 택규가 따라나선다. 그녀는 맹아학교 음악교사 김성희다. 그녀에게 호감 가진 택규는 잡지사에서 일해보길 권한다.

②情報(11~19회): 유자에 집에 간 이경희는 신현우를 봤다고 한다. 자에는 첫사랑 현우에게 처녀성을 바치고 그로 인해 유산했던 일 등을 떠올린다. 사흘 후 자에는 다방에 현우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자 메모를 남긴다.

③한떨기 장미꽃(20~31회): 맹아학교 학생 영숙은 성희를 찍 따른다. 윤필구와 만난 성희는 그에게 잡지사 취직 의사를 묻는 한편, 학예회 때 공연할 노래극 원고 검토 등을 부탁한다. 그녀는 영숙의 사촌오빠인 편집장 최영호도 만난다. 이를 후 자에는 한 시간 넘도록 현우를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한다.

④丹楓과 더불어(32~41회): 경희는 내일 현우 등과 광릉 가기로 했으며 같이 가자고 한다. 자애가 귀가해 보니 남편 김중모가 와 있었는데, 생활비를 주고 나갔다가 통금시간에 들어와 언쟁한다. 이튿날 그녀는 현우와 재회해 광릉에 간다. 사진 찍던 중 갑자기 날아온 공 때문에 현우가 물에 빠지자 공 입자 백은주가 사과하고 간다.

⑤씩(42~50회): 택규는 위암을 앓는 아내(혜원)를 뒤로 하고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며 출근했는데 성희가 필구를 취직시켜줘 고맙다며 만나자 한다. 성희는 택규에게 젊어보인다고 한다. 그들은 식사 후 영화를 함께 본다.

⑥混線(51~69회): 영호는, 성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은주가 찢어버리자, 기분이 상한다. 그날 맹아학교에 집단장질부사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영호는 영숙이 격정돼 전화하러 간다. 은주는 영호가 성희에게 전화하러 갔다며 화내다가 현우와 마주치자 인사한다. 현우는 자애와 함께 하숙방을 보러 간다.

⑦남편 있는 未亡人(70~82회): 자애는 자신을 남편있는 미망인이라 한다. 이튿날 현우가 하숙에 돌아가니 방을 단장하던 자애는 내의와 한복을 꺼내 주며 이혼할 각오가 돼 있음을 밝힌다. 그날 밤부터 이튿날 함께 지내다가 자애가 경주에 여행가자고 한다.

⑧明暗(83~92회):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달라진 택규를 보고 혜원은 여

자 생겼나고 소동 벌인 뒤 수술하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성희와 영호가 함께 나가는 걸 본 택규는 서글퍼진다. 성희와 영호가 다방에 갔는데 은주가 나타나 시비를 건다. 이에 영호가 은주 뺨을 때리자 성희는 급히 나가서 영호와 찍은 사진을 찢어버린다.

⑨ 倦怠여 안녕(93~108회): 현우와 자애는 경주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부산까지 간 자애는 이혼을 요구하려고 남편회사에 갔는데 남편은 서울 가고 없다. 한편 서울에서는 자애와 현우가 동시에 행방이 묘연해진 걸 알고 찾아다닌다. 귀가한 자애는 이혼을 선언한다.

⑩ 샘(109~121회): 영호를 만나지 말라는 은주의 협박성 편지를 받은 성희는 영호에게 오해 않게 해달라고 한다. 영호는, 은주와는 멀어졌으며, 성희를 좋아한다고 한다. 성희는 아무 사이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들을 쫓아온 필구는 둘의 관계를 오해한다. 성희는 두 청년에게 모두 실망감을 느끼던 차에 택규를 만나자 덕수궁에 함께 간다. 성희와 즐겁게 놀다가 병원에 간 택규는 아내를 보자 미안한 생각이 든다.

⑪ 初戀夫人(122~138회): 합의이혼하여 현우와 새살림 차린 자애는 문패를 함께 달며 즐거워한다. 현우는 증권회사 총무과장으로 취직했는데 뜻밖에 은주가 근무하는 회사였다. 현우는 은주에게 떠밀려 드라이브 갔다가 유혹을 뿌리치고 귀가한다. 자애는 자축의 뜻으로 푸짐한 저녁상을 차리고 양주도 준비해 있었다. 자애가 산부인과 가서 임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데도 현우는 자꾸 은주 생각이 난다.

⑫ 遠心・求心(139~148회): 맹아학교 학예회날, 택규가 성희에게 인사하자 필구는 의아하게 여긴다. 공연 후 성희는 택규의 제의로 중국집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다. 술기운에 성희가 비틀거리자 택규가 부축하는데 정혜가 그 장면을 본다. 성희와 택규는 눈 오는 거리를 팔짱 끼고 거닌다.

⑬ 京仁街道(149~166회): 임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애는 성희에게 영호와의 혼담을 꺼내나 거절당한다. 며칠 후 성희는 택규와 인천항에 갔다가 물에 빠진다. 구조된 그녀를 택규가 호텔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 옷과 구두 때문에 다른 방에서 하룻밤 묵고 귀경한다.

⑭ 對價(167~175회): 택규는, 좋은 부인 만나 잘 살라는 아내의 말에 이어, 일주일밖에 못 살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한다. 그런데 성희가 찾아와 인천에서의 일이 신문에 났다며 격분하고는 다신 안 만나겠다 한다. 성희는 미국유학에 앞서 약혼해야 할 처지라는 필구의 말을 듣는 도중 갑자기 열이 오른다. 필구는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가면서 의사를 왕진토록 조치한다.

⑮ 誘惑이란 무기(176~191회): 은주는 현우를 이용하려고 댄스 등으로 유혹하고 어떤 청년의 취직을 부탁하는가 하면 함께 여행가자고 한다. 자애는 현우 옷을 정리하다가 극장표를 보고 의심한다. 현우는 친구와 다녀온 극장표라고 변명한다. 자애는 와이셔츠에 립스틱자국이 찍힌 것을 뒤늦게 확인한다. 그때 경희가 찾아와서 현우와 은주가 같이 근무한다며 떠도는 소문들

을 전해준다. 흐느껴 울던 자애가 현우를 찾아갔다가 은주가 인사하니 불쾌해진다. 귀가 후 자애는 와이셔츠 등을 제시하며 현우를 추궁한다.

⑯**젊음의 勝利**(192~209회): 필구의 청혼 편지를 받고 고민하던 성희는 택규로부터 부인의 49제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택규는 절에 온 성희에게 청혼하고는 첫사랑이라며 껴안는다. 성희가 울며 뿌리치고 가는데 필구가 그 장면을 본다. 필구는 영호의 편지를 통해 그가 농촌에서 작은 학교를 경영한다는 사실과 함께 택규와 성희가 가까운 사이임을 확인한 게 서울 떠난 이유임을 안다. 필구는 택규를 위선자로 판단해 성희에게 그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한다. 그리고 택규를 찾아가 사표 내며 흥분하나, 택규는 사표를 반려한다. 필구는 성희를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그걸 본 택규는 성희를 잊기로 한다.

⑰**생각하는 갈대**(210~231): 현우는 자애를 속이고 은주와 온천에 가나, 밤이 되자 은주는 현우를 피해버린다. 이튿날 현우가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며 은주를 껴안고 입 맞추려는 순간 자애가 들이닥친다. 자애에게 뺨맞은 은주는 결혼을 승낙한다며 나간다. 그 후 은주는 현우에게 이혼하면 결혼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본 자애가 따지던 중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절망한다. 자애는 코코아에 수면제를 타서 동반자살을 꾀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다.

⑱**마음의 愛人**(232~241회): 동반자살기도 사건이 보도된 신문을 본 성희는 병원 갔다가 택규를 만난다. 택규가 필구를 훌륭한 청년이라 말한 후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자 성희도 이해한다. 경찰은 자애를 교살혐의로 연행한다.

⑲**法和 사랑**(242~256회): 은주는 경찰서를 찾아가 죄는 자신에게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다. 각계 증언이 자애에게 유리하게 되고 현우도 탄원서를 내는 등의 노력 끝에 자애가 석방된다.

⑳**地上에 맺다**(257~270회): 성희와 약혼하고 곧 유학간다는 필구의 편지를 받은 영호는, 자애 부부의 기사를 보며 은주의 타락이 자기의 절교선언 때문이라 여긴다. 독지가를 만나러 상경한 그는 은주를 찾아가 함께 시골에 가자고 한다. 은주는 바로 함께 가지는 않았으나 곧 시골로 가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한편 자애와 현우는 경주에 여행가서 토함산 일출을 보며 새출발을 다짐한다.

이상의 개요에서 보듯이, 이 작품은 중형으로 얽혀진 애정의 각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40대 중년의 사랑이 의미 있게 조명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되어 20대 남녀들의 애정 갈등 양상도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우선 엄택규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보면, 그는 병석의 아내와 발랄한 처녀

사이에서 고민한다. 아내 혜원이 위암으로 누워 있는 가운데 엄택규는 김성희라는 처녀를 만나 호감을 갖는다. 성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병석의 아내를 보고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만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내가 죽자 그는 성희에게 청혼하게 되나, 그때 비로소 그녀의 그에 대한 감정이 연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유자애를 중심으로 한 애정 양상을 보면, 그녀는 외도하며 탄살림까지 차린 남편 김종모와 살아가던 중에 첫사랑 신현우를 만나 못다한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그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합의이혼까지 이끌어내고 어렵사리 재결합에 성공한다. 하지만 곧 또다른 난관이 닥치는데, 그것은 현우가 백은주의 유혹에 넘어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현우와 동반자살 기도까지 한 끝에 진정한 애정을 성취하기에 이른다.

이런 두 중년의 애정 전선은 젊은이들과 긴밀히 연루되어 있다. 엄택규가 연정을 느끼는 성희에게는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윤필구라는 청년이 있었다. 게다가 직장의 부하직원 최영호도 성희에게 애정을 고백한다. 그런데 영호는 백은주의 애인이었고, 은주는 자애의 첫사랑 현우를 유혹한다. 이렇게 중년의 애정과 청년의 애정이 뒤얽혀 갖가지 사건들이 펼쳐진다. 결국 성희는 필구와 약혼을 하게 되고, 절교했던 영호와 은주도 재결합하는 쪽으로 청춘들의 애정 갈등은 정리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뒤얽힌, 그것도 중년(제2청춘)과 청년(제1청춘)이 뒤얽힌 애정구도가 이 작품의 큰 열개인 것이다. 물론 이런 열개가 대중들의 흥미를 끄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안수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만주와 관북지방 체험이 형상화되고 있다. 윤필구의 가족은 만주로 이주하여 온갖 고생을 하며 살다가 해방과 함께 서울로 왔으며, 신현우도 만주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유자애는 함흥 출신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삽화적·배경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의 주된 무대도 아니었으며, 애정을 가로막는 고난의 요소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다.

### Ⅲ. 중년의 감각과 사랑 그리고 여성의 자기 인식

이 작품에서 가장 크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 ‘제2의 청춘’이듯, 중년의 저변에 깔린 고민들이 애정 문제와 결부되어 잘 형상화되고 있는 소설인 것이다. 안수길도 작품 연재에 앞서 그러한 창작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중년에 청춘이 다시 한 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남아있는 청춘이 마지막으로 활짝 폈다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꺼지기 전의 촛불과도 같은 것이므로 그 불꽃은 찬란할 것이며 그 청춘은 세련과 원숙한 면모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불꽃이며 어떤 뜻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나는 제2의 청춘의 몇 개의 경우를 젊은 세대의 싱싱한 청춘과 대조해 가면서 이 마지막으로 피어나는 불꽃을 어떻게 깨끗하고 찬란하게 불타게 하며 인생의 위기를 올바르게 처리할까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sup>8)</sup>

안수길에 따르면, 중년은 인생의 남아 있는 청춘이 활짝 피었다 사라지는 제2의 청춘이다. 그것은 세련됨과 원숙함의 면모를 보이지만, 인생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중년세대의 바람직한 지향을 젊은 세대의 싱싱한 청춘과 대조해가면서 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작의인 셈이다. 이런 작가의 의도는 작품 전반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 중년의 사랑은 엄택규와 유자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엄택규의 사랑은 성사되지 못하는 반면, 유자애의 사랑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만약 엄택규 혹은 유자애 어느 한 중년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면 이 소설의 성과나 흥미는 그만큼 반감되었을 것이다. 두 중년의 경우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갔다는 점이 이 소설의 묘미가 되고 있다.

『부인화보』라는 잡지사의 사상인 엄택규는 49세다. <제2의 청춘>을 연재할

8) 안수길, 「작자의 말」, 『조선일보』 1957. 9. 15.



때 안수길의 나이가 47세였으니, 당시 작가가 인식하는 중년의 감각과 작중인물 엄택규의 그것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엄택규는 자신의 나이에 대해 작품 서두에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버스에서 생면부지의 여자를 아는 채 한 실수 때문에 망신스럽다고 여기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이를 좀 먹은 탓이지. 너도 나이를 먹어봐.’(2회)라고 속으로 변명한다.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합리화의 감정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김성희가 든 꽃다발을 보면서 ‘따리아, 그것도 빨간 따리아. 이견 정녕 청춘을 상징하는 것이렸다. 저 타는 듯한 빨간 빛! 불같은 정열! 그것은 오직 청춘만이 소유하는 전유물인가?’(2회)라고, 달리아 꽃의 빨간 빛에 막연한 질투의 감정을 느끼며 푸념하기도 한다.

“사십이 지나면 밤에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 일찍 깨고 재잠을 잘 수 없다. 늙어가는 증거다……”

엄택규는 여기를 읽다가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정확하게 사십을 넘었을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츰 아침잠이 없어 지더니 최근 이삼 년은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다.(…)

‘늙어가는 증거라?’

이렇게 중얼거리고 엄택규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왼편 벽에 의지해 놓여 있는 책장 옆에 낡은 잡지가 쌓여 있다. 그 맞은편 벽에는 누구의 그림인지 산수화 한 폭이 걸려 있을 뿐, 흰 종이로 도배한 방이 단조하고 쓸쓸하기까지 하다.

‘여기 앉아 있는 내 모습도 쓸쓸하렸다.’(42회)

그는 늙어가는 증거가 자신에게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쓸쓸한 모습의 자신을 새삼 인식한다. 그가 이렇게 늙어감과 쓸쓸해짐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아내가 처한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위암으로 앓아누워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중년은 더욱 우울한 것이다. 이 우울한 중년에게 성희라는 처녀는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준다. 그녀를 만난 뒤로는 그녀가 까닭 없이 자꾸만 기다려졌다. “누워있는 아내의 따분한 모습을 보다가는 문득 떠오르곤 하던 성희의 얼굴”(28회)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욕을 주었으며 그것은 결국 연정(戀情)으로 진전되어간다. 그는 성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두고 “이건 청년 시절에 가졌던 감정과 꼭 같지 않은가?”라고 느끼게 된다. 그

런 연정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지도 몰라. 그렇지. 내 나이 마흔아홉, 사십대인데 뭘 그래. 아직 사십이야. 우리 대통령은 여든셋이 아니신가. 사십은 애기지 뭐야.”라거나 “아침잠이 없는 것이 늙은 증거라고? 늙는 것을 어디다 표준을 두냐? 사십을 늙었다고?”(50회) 식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합리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는 성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가 하면, 팔짱을 끼고 눈오는 거리를 거닐기도 하고, 교외로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랑에 무슨 노소(老少)가 있겠느냐?”(146회)는 인식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그 와중에 오랫동안 앓아누웠던 아내는 좋은 부인 만나 잘 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엄택규는 아내의 49재에 성희를 초대한다. 그리고 그는 절에 찾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는다.

“내가 성희에게, 성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힘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아니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남이 듣는다면 깔깔대고 웃을 것이요.(…) 그러나, 남이야 어쨌든 성희야 아연해 하긴, 나는 나로서 내 심정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또 떳떳한 일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요. 거듭 말하오. 나는 성희를 사랑하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심중을 속임 없이 고백하는 것이 내 일생의 첫 일ियो. 속임 없이 고백하는 것이 첫 일일 뿐 아니라, 이성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해 보는 것도 첫 일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오. 이를테면 첫사랑이라고 할가요.(…)”(199회)

성희가 첫사랑이라는 엄택규의 고백이다. 열여덟 살 때 여름방학에 고향에 갔다가 할아버지의 우격다짐으로 장가를 들었으니 사별한 아내 혜원과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상대인 성희와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택규에게 뒤늦게 타오르던 사랑의 열망은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다.

청혼을 받고 고백을 들은 성희는 “분노 같은 것이 폭발하는 듯이 소스라쳐 놀라더니”(200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버린다. 게다가 성희를 좋아하던 윤필구가 택규를 “세련과 원숙한 숨씨인 거기에 사회적 지위와 돈의 힘으로 젊은 여자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위선자의 행동, 그 결과 젊은 세대를 유린하는 잔인한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207회)라고 몰아붙이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최영호

가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한 데에도 성희와 택규가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도 뒤늦게 드러난다. 결국 성희, 필구, 영호 등 젊은이들의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에 택규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작가는 엄택규를 나락으로 몰아넣는다거나 추한 모습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정 전선에서는 물러서지만, 그는 책임 있는 중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꼭 충실히 수행한다. 그는 “의리도 정리(情理)도 짓혀놓고 남의 언동(言動)을 신중한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찰을 근거로 저의 편리하도록 해석을 붙여 중년을 타매하고 공박하는 것이 또 젊은 세대의 윤리란 말인가?”(207회)라며 젊은이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가 하면, “내 옆에서 직접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군은 우리 사의 특파원의 자격으로 거기 가서도 활약해 줄 거고, 최군은 최군대로 후원이 있어야겠소. 만약에 (...) 일이 여의치 않을 땐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오. 친정집같이 맞아주리다.”(262회)라며 필구와 영호에게 계속 자신의 회사와 인연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는 포용의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중년세대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시선<sup>9)</sup>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택규의 경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귀결된 셈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꿈꾸었던 중년의 사랑이 부질없는 짓거리였다는 식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엄택규에게 50이 다 된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중년에 가서 애잔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의미 있게 그려낸 것이다.

한편, 40세의 유자애는 자신이 추구하던 사랑을 이루어내고 행복한 새출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택규와 대비된다. 자애는 김종모의 후처로 15년 동안 살

9) 전후사회의 세대갈등 문제와 그것에 대한 중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수길이 1959년 7월 21일부터 1960년 4월 1일까지 『동아일보』에 254회 연재한 <부교(浮橋)>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늙음과 젊음, 두 세대를 강물의 두 언덕으로 생각하고 그 두 언덕을 연결하는”(『작자의 말』, 『동아일보』 1959. 7. 12.) 존재로서 중년을 부각시킨 <부교>에서는 임동호가 <제2의 청춘>의 엄택규와 유사한 인물이다. 40대 후반의 임동호는 의사이자 음악평론가이자 수필가로서, 해결사적·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노년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푸는 역할만이 아니라, 김남주의 애정갈등, 최금희의 방황 등을 수습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

아왔다. 직접 낳은 자식도 없이 전처소생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한양공사 사장인 남편은 부산에 탄 살림을 차려 살면서 가끔 들러 돈이나 주고 가는 인물이다.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던 자애는 사실상 “남편이 있는 미망인”(71회)의 처지였던 셈이다. 그녀는 후처에다 축첩(蓄妾)한 남편을 두고 제 몸으로 낳은 자식도 없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첫사랑 신현우가 거의 2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다. 그러자 “자애의 마음에는 갑자기 불이 확 하고 붙었”으며 “인습 때문에 젊은 시절에 타다가 꺼진 청춘의 찌꺼기가 되살아”(18회)났다. “신현우가 서울에 있다는 소식으로 자애는 권태의 생활, 우수의 생활에서 한 가닥 생기를 발견하”면서 “부풀은 가슴을 주체 못하”(31회)게 되었다. 자애는 처녀 시절 현우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임신했던 경험까지 있다. 희망 없는 결혼생활 속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그 첫사랑이 홀몸이니,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게 없다고 그녀는 생각게 된다. 이제 자애는 현우와의 못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친구 집에 더부살이하던 현우에게 하숙집을 얻어주는가 하면 의복과 가구도 장만해 주며 함께 지내기도 한다.

자애가 사랑을 되찾으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은 주체적인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은 작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우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자애의 발언을 보면 주체적 자기인식이 뚜렷이 확인된다.

“(…) 저는 자유부인은 아니에요. 선량한 남편을 두고 허영에 떠서 젊은 애들과 댄스요, 계요로 몸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입센의 ‘노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란 사람에게서 인형처럼 귀염을 받는다면 그런 남편을 비웃으면서 저는 저대로 체념(諦念)의 생활도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처지는 어디까지나 아내라는 직업이예요. 월급이 후한 취직이예요. ‘안나 카레니나’도 아니에요. 신선생님은 결코 눈오는 날 정거장에서 우연히 만난 미남자는 아니니까요. 첫사랑이예요. 선생님과 사이는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이예요. 그러나 그저 그 첫사랑을 중년에 와서 이룬다는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생애를 첫사랑을 그대로 돌이킴으로써 진실한 애정에서 살아보겠다는 저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나 카레니나’는 종교와 귀족사회의 체면 때문에 고민했어요. 자유부인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노라’는 인형의 집을 나간 후가

문제였어요. 모두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게 원인이예요. 그러나 세계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예요. 세계는 종교의 제약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선생님과의 경우, 허영은 물론 아니고 또 선생님과의 경우니까 집을 나간대도 그 후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는 선생님의 애정과 각오예요. 선생님만 철저하시다면…… 선생님이 망서리시는 원인을 없앨 각오를 저는 하고 있어요. 깨끗이 이혼을 하고 오겠어요.”(81회)

자애는 정비석의 <자유부인>, 입센의 <인형의 집>,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등을 내세우면서 그 작품들에 나오는 여주인공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랑은 당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74회 연재분에서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까지 거론하며 여성 문제를 논리정연하게 제기한다. 그리고 그런 당당한 사랑을 확실히 열매 맺기 위해 그녀는 애정 없이 부부관계로 지내고 있는 남편과 깨끗이 이혼할 것임을 표명한다.

“나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예요.(…) 우리에게 가둬놓고 제때제때에 꼬박꼬박 갖다주는 먹이를 고맙게 받아먹고 가끔 생리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걸 감지덕지하는 암돼지가 아니예요.”(35회)라고 항변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자애는 이미 남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물론 이는 신현우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의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재회하지는 않은 시점이다.). 현우와 며칠 동안 경주 여행을 하고 나서 그녀는 전격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한다.

“몇 해씩 집을 비워두고 돌보지 않는 남성은 책망을 듣지 않고 여편네가 한 일주일 집을 나가면 죽일년 화냥년 하고 법석 떠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예요?”

“그거야 경우가 다르지.”

“똥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남자는 사업상……”

“그만 두세요. 또 사업상인가요. 남자는 사업상 이 계집 저 계집으로 넘나들어두 무방하고 여자는 죽일년 화냥년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럼 당신은 남편이 남자된 구실로 그야말로 조금 의도를 한다구 해서, 피장파장으로 예편네가 딴 남자와 교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요?”(…)

“남자된 구실로라구요?”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쳐이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야, 남편 있는 여편네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면 간음

이겠지요. 아내를 두고 따로 여자와 첩살림 같을 걸 떠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쌍벌죄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런 생활을 이 이상 끌고 나간다고 피차에 죄악만 더 저지를 뿐이니 이번에 깨끗이 청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 아까 피장파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당신이라는 남편이 있는 이상, 피장파장의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세상사람들은 당신보다도 나를 더 비난할 거예요. 비난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예요. 비난을 받는 것보다 그런 것은 나의 결백성이 용서치 않아요. 이성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조(貞操)의 순결이 용서치 않아요. 나는 결코 화냥년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태는 당신하고 깨끗이 이혼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처지예요.”(105~106회)

참고 견디는 게 여자의 미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러한 자애의 발언은 이 뒤에도 장황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계속 이어진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이혼모티프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의 결과로만 행해지는 이혼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이혼이라는 면에서, 타자의 삶에서 벗어나 주체를 회복하는 여성의 자기 인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가정주부의 경우, 정비석의 <자유부인>에 나오는 오선영처럼 탈선하다가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김내성의 <애인>에 나오는 오영심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절망에 빠져 동반자살을 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다.<sup>10)</sup> 여성문제에 대해 이슈화 또는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현실의 장벽 속에 스스로 주저앉고 말거나 되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 측면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제2의 청춘>의 유자애가 당당히 이혼을 선언하고 그 뜻을 이루어 첫사랑과의 재결합에 성공하는 것은 꽤 유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애의 이혼 행위는 “여자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짐 지키는 고용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 그릇된 인습을 박차버리고 나온 처지”(250회)라고 하겠기에 매우 긍정적인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는 자애의 처지를 특수한 것으로 한정해버리지 않는다는 데 그 의미가

10) <자유부인>과 <애인>에 대해서는 김동운,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리토피아, 2004)에 수록된 「1950년대 신문소설의 한 양상」과 「전후소설에 나타난 연애 양상과 그 의미」를 참조할 것.

확산된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듯, 자애만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냄과 아울러 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는 제가 김종모 씨 집에서 겪던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저처럼 옛사랑을 찾아 희망에 부풀어본다든가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팔자거니, 이게 운명이거니, 하고 인생을 빗없이 마치는 여성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저의 애정을 소중하게 열매를 맺어 주는 것이 적어도 지성이 있는 남자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저는 저 개인의 무너지는 행복도 아쉬웠으려니와 일생을 팔자소관으로 어둡게 마치는 많은 여자를 대변해 남편에게 항의하는 마음이 생겼어요.”(250회)

자애는 어렵게 첫사랑과 재결합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넘어야 할 벽이 또 있었다. 현우 주변의 여자, 즉 백은주가 문제였다. 안수길도 자신이 창조한 인물 가운데 백은주를 ‘악녀 타입’<sup>11)</sup>으로 평가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 작품에서 가장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중년 신사들은 우리 또래의 젊은 여자애겐 무조건 머리를 숙인다더라. 이 분의 친절도 그런 성질의 것일 게야. (...) 약간, 호의를 베푸는 체 하기만 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64회) 식으로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녀는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난관에 빠지게 하는 인물인 것이다. 은주는 현우를 유혹해 영화관·댄스홀 등을 다니더니 급기야 단둘이 온천 여행을 떠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녀는 피를 부려 동침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성적 욕망을 이용해 현우로부터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이끌어낸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애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동반자살이었다. 자애는 평소에 <보바리 부인>에서 “호색한 ‘로돌프’의 농락에서와 청년 범룽가 ‘레옹’과의 사랑을 위해 남편 몰래 진 빗을 청산할 길이 없어 비소(砒素)를 먹고 죽은 ‘엠마 보바리’”(217회)에 대해, 혼자 자살했다 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 “왜 ‘보바리 부인’이나 ‘안나 카레니나’는 그렇게 약할까?”(251회) 하는 불만을 지녔기에 함께 죽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저승에서나마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감행한 행

11) 안수길, 『내가 창조한 여인상』, 『명아주 한 포기』(문예창작사, 1977), 219쪽.

위로 볼 수 있다. 둘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자애는 교살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진실한 사랑을 향한 열망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결국 현우와의 사랑은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윽고 숯불 같은 등근 불덩이는 황금빛으로 빛나더니 어느 곁에 힘찬 광선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제 눈이 부시어 맞볼 수 없었다. 첫 햇빛을 몸에 받으면서 신현우가 말했다.

“우리의 새 출발도 저처럼 엄숙하고 힘차고 희망에 넘치고 있는 것이오.”(270회)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엄숙하고 힘차고 희망에 넘치는 중년의 당당한 새 출발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 이런 장면으로 마감하는 것에서 볼 때, 작가는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중년의 새 출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 소설을 이끌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1950년대 소설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볼 때 띄어 차별화된 주제의식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중년세대에 대한 옹호, 그릇된 인습에 함몰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성의 자기 인식 등이 이 작품을 독해하는 중요한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여성의식은 높이 살만하다. 순종하는 여성상을 강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여성을 내세운 점은 1950년대 상황에서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들로 인해 이 작품이 아마도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독자의 공감대를 얻으면서<sup>12)</sup> 인기소설로 부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전후사회의 세대와 일상

대부분이 신문소설이 그렇듯이, 이 소설에서는 당시 사회의 일상과 세대를

12) 안수길, 「창작 여담—〈제2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1958. 8), 16~17쪽에 보면, 특히 여성 독자들의 관심이 많았음이 확인된다.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신문소설의 ‘시사성(時事性)’과도 관련이 있다. 시사성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당대의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신문이 그날그날 일어나는 사건, 곧 현재의 사건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신문소설에서도 당대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소설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독자들의 현재적 관심사를 소재로 택하여 작품화한다는 점에서 신문기사의 현재성처럼 신문소설에서도 시사성이 중시된다. 저널리즘이라는 신문의 속성상 거기에 실리는 소설 역시 잡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소설에 비해 시사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사성이야말로 신문소설의 사회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에는 ‘대중사회의 도래’<sup>13)</sup>로 요약되는 전후의 상황이 잘 포착되어 나타난다. 서구지향의 대중문화가 만연한 도시의 일상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조니워커에 담뱃피 취하”(138회)는가 하면 “머큐리55’-최신형 고급차”(157회)를 타고 가며 “배가본드’의 경음악”(157회)을 음미한다. 당시로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도시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교양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물밀 듯이 밀려들었던 서구문화 지향의 세태가 작품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와 관련된 장면은 수도 없이 등장한다. <에텐의 동쪽>(12회), <행복에의 초대>(49회) <로마의 휴일>(165회), <세일즈맨의 죽음>(176회), <자이언트>(189회) 등 여러 영화들이 언급되고, 작중인물의 상황이나 심정이 영화 속 장면이나 내용에 연관되어 서술된다. “미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천재배우 제임스 딘의 명연기가 화면에서 육박해왔다”(18회)거나 “오드리 헐번이 강물에 출렁하는 장면”(165회) 등 외국배우들의 연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물론 이 영화들은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들이다.<sup>14)</sup> <제2의 청춘>이 연재되는 동안 『조선일보』에는 연재소설

13) 박명림,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비평사, 1998), 72쪽.

14)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열화당, 1989)에서도 <에텐의 동쪽>·<세일즈맨의 죽음>·<자이언트>가 1957년에 개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이언트>는 1957년 10월부터 1958년 2월까지

과 같은 면에 ‘신 영화(新映畵)’와 ‘영화 장평(映畵掌評)’이라는 꼭지가 마련되어 새로 들어온 영화를 소개하는데, 그 대부분이 할리우드 영화였다.<sup>15)</sup> <제2의 청춘>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단순한 소재나 배경으로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행복에의 초대>를 보는 동안 엄택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서로의 사랑을 얻기 위해 부호인 척 하는 ‘마네큐어·결’과 자동차 수리 공인 젊은 남녀의 사랑을 성취시켜 주는 중년의 이야기. 일종의 웃음거리였으나 감미한 음악과 함께 그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

화면에 빨려들어 가면서 엄택규는 스스로 생각하고 흐뭇했다. 영화에 나오는 중년을 자신에게 비겨보면서…….(49회)

경남극장에서는 <자이언트>를 재상연하고 있었다.(…)

화면에 ‘제임스 딘’의 얼굴이 보였다.

자애는 문득 신현우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가지고온 이경희와 함께 <에덴의 동쪽>을 보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에, 터지는 것 같던 벽찬 가슴. 화면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젊은 날의 신현우에게도 비겨보고 중년인 신현우에게도 비겨보았던 일. 그래서 그 주연배우의 이름도 외웠던 ‘제임스 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건만, 반년이 지난 오늘, 같은 배우의 얼굴을 보는 유자애의 가슴속은 처량하기만 했다.(189회)

49회 연재분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년의 심리적 상황을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회 연재분에서는, 유자애가 신현우와 재회하기 직전에 벽찬 기대감에 있던 상황과 신현우가 백은주에게 빠져 허우적대는 급변한 상황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에덴의 동쪽>과 <자이언트>에 출연한 배우 제임스 딘과 연관시켜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작품을 이끌어가는 요긴한 장치로 영화가 활용되고 있다

---

지 『조선일보』 광고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며, 『조선일보』의 1957년 11월 4일자 ‘신 영화’ 꼭지에도 소개된다. <세일즈맨의 죽음>도 『조선일보』의 1958년 2월 13일자 ‘영화 장평’에서 다루어졌다.

15) <제2의 청춘>이 연재되는 동안 ‘신 영화’와 ‘영화 장평’에 소개된 영화로는 <추상>·<사파리>·<러브 미 텐더>·<아파치>·<트로이의 헬렌>·<야수라는 이름의 사나이>·<최후의 총격>·<황야의 포옹>·<스파이 소동>·<케인호의 반란>·<파리의 연인>·<목로 주점> 등이 있다.

는 것이다.

사실 1950년대에는 외국영화 수입이 늘면서 많은 한국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3년간 국내에 개봉된 영화는 모두 461편이었는데, 그 중에 외국영화가 385편으로 83.5%를 차지하였음<sup>16)</sup>은 당시의 외국영화가 한국의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증명해 준다. 당대의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를 모아 출간한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에 수록된 488편의 영화 가운데에서도 75.2%인 367편이 외국영화였다. 수입된 외국영화의 대부분이 할리우드 영화였음을 볼 때,<sup>17)</sup>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국영화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김종원의 「1950년대 영화 이야기」에는 “어느새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미국의 반항아 제임스 딘이 과속으로 거리를 질주했다. <로마의 휴일>(1953)의 앤 공주 오드리 헵번이 짧은 커트머리로 단숨에 ‘헵번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유행가의 스타가 되었고, <돌아오지 않는 강>(1954)의 마릴린 몬로는 선정적인 엉덩이 걸음 하나로 일약 글래머라는 말과 함께 ‘몬로 워크’ 선풍을 일으켰다.”<sup>18)</sup>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의 미국영화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세계적인 열풍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의 여과 없이 이식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전쟁의 상처로 현실에 굳게 정착하지 못한 채 정신적 부유(浮遊)의 삶을 살았던 1950년대의 대중들은 영화 속 현실을 실제

16) 1955~57년 국내 개봉영화 국산·수입 대비표(이정선, 「마스·미디어로서의 한국영화—영화 기획의 방향과 우리의 반성」, 『자유세계』 1958년 4월호, 167쪽 참조.)

연도	한국영화	수입영화	계
1955년	10편	150편	160편
1956년	26편	115편	141편
1957년	40편	120편	160편
계	76편	385편	461편

17)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화(外畵)의 80~90%가 미국영화다. 박명진, 「대중문화의 현실—영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나남, 1991), 190쪽.

18) 김종원, 「1950년대 영화 이야기」, 열화당 영상자료실 엮음,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우리 잡지에 실린 영화광고』(열화당, 1998), 10쪽.

현실인 양 착각하면서 집단취면에 걸려 살았던 게 아닌가 할 정도다. <제2의 청춘>에서 우리는 그 단면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댄스바람’의 양상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댄스바람은 1950년대 퇴폐·향락주의의 대표적인 양상이었다. 일부 특수층에서는 부산 피난 시절에도 댄스파티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 얼마간 안정을 되찾게 되자 한때 주춤했던 사교계(社交界)가 부활되고 댄스바람이 강력하게 일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한 건달이 댄스홀을 무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춤바람이 난 여대생과 직업여성을 70여 명이나 농락한 ‘박인수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댄스바람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모티프가 되었는데,<sup>19)</sup> <제2의 청춘>에서 백은주는 댄스를 통해 유부남인 직장상사를 유혹하는 인물이다.

댄스! 백은주는 댄스의 마력(魔力)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겠는 것이 먼저 과장을 손아귀에 넣은 것도 댄스의 마력으로서였다.

신현우보다 젊은 그는 지독한 ‘댄스 마니아’였다. 해방 전에 상해 방면에 있었다는 그는 스텝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교습소를 열 수 있으리만큼 전문적이었다.

백은주의 댄스도 대단한 거다. 젊은 과장은 백은주와 취야만 춤을 춘 것 같다고 했다. 댄스 싶었다. 백은주는 기회를 자주 만들밖에 없었다. 완전히 상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축낸 돈 문제가 아니었다. 사원들을 그냥 눈 아래로 보았다. 여왕 행세?(178회)

젊은 과장이 떠나고 신현우가 새로운 과장으로 부임해 오자, 그녀는 다시 ‘댄스의 마력(魔力)’을 행사하여 그를 유혹한 뒤에 부정을 저지르려고 시도한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끌려 다니던 신현우는 스텝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댄스에 빠져든다. 그들은 댄스홀에서 춤을 추다가 카바레까지 진출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댄스는 온천여행을 함께 떠나기까지 둘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매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계(契)바람’의 양상도 이 작품에서 그려진다. 전쟁 후의 1950년대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물질만능주의가 횡행했다. 모든 현상이 돈을

19) 김동훈, 『신문소설의 재조명』(예림기획, 2001), 86~92쪽 참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가치가 지배하기 시작하던 사회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계바람이었다. 계는 1950년대 서민의 자금유통 수단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는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신용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전후에 계가 성행한 이유였다. 서민층 여성만이 아니라 고관 부인까지도 계를 이용하면서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20)</sup> 특히 1955년 1월에는 ‘광주 계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계가 깨지자 자살하거나 미친 가정주부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이혼소송도 일어나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당시의 신문보도<sup>21)</sup>에 나타난 광주 계 사건의 전모를 보면, 광주 시내에서의 계 가입자만 약 8000명에 이르고, 그 총액은 2억~6억 원이며, 8명이 자살하고, 6명이 정신이상자가 되었으며, 자살미수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이혼소송까지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계바람이 1950년대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계 문제는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었는데,<sup>22)</sup> <제2의 청춘>에서도 껏돈을 타서 가족소풍을 가는 이야기(33회), 계가 깨어질까봐 걱정하는 장면(68~69회), 껏돈 때문에 남편을 사고 판 사건도 있다는 말(69회) 등이 나온다. 유자애는 여자들이 계를 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주목해볼 점이다.

“우리 낫세가 되면 생활에 권태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권태에서 벗어나, 무얼 더듬어 잡으려는 심정이 격렬하게 발동해요.”

하였다.

“그 격렬한 심정의 대상이 계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계는 반드시 돈 없는 사람들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요. 경희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조석 끼니가 걱정되거나 거울이 닳치는데 거처할 집이 없는 처지는 아니예요. 그뿐인가요. 다방에 모여 껏돈을 셈하고 중국요리집 이층에서 음식을 나눠가며 회

20)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서해문집, 2004), 249~257쪽 참조.

21) “‘광주’계혼란의 파문, 『한국일보』 1955. 1. 10.

22) 김말봉의 <생명>(1956~57), 박계주의 <별아 내 가슴에>(1954~55), 박영준의 <형관>(1955~56), 이무영의 <창>(1955),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 등 여러 편의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계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166~169쪽 참조.

계에 열중하는 부인네들의 차림이나 얼굴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69회)

계가 ‘격렬한 심정의 대상’으로까지 비취지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의 경우에는 멋도 부리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계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이를 볼 때 당시의 계바람은 표면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의 반영이라고 하겠지만 이면적으로는 여성들이 지녔던 일상 탈출의 욕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향교육 모티프도 이 작품에 등장한다. 최영호는 잡지사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학교를 경영한다. 다음은 최영호가 낙향하여 윤필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학교를 경영한다면 굉장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촌을 중심으로 한 인근(隣近) 여러 촌에는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나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동과 청년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아 놓고 중·고등학교의 기본 과정을 가르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나 변변한 교사(校舍)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 전부터 있던 다 낡은 양잠실습소 집을 동네 사람들의 힘을 모아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수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울의 중고등학교같이 대학입학시험을 위하여 존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 그들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중고등학교 정도가 될 지식을 여러 모로 전달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설 푸기 짝이 없는 수업상태지마는, 제가 전에 선생노릇을 얼마 동안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간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객기(客氣)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든 것도 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204회)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년을 모아놓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다. 변변한 학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원도 혼자인 형편이다.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골에서 고군분투하던 최영호는 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독지가를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상경한다. 그때 그는 연인 사이였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백운주를 찾아가 함께 낙향하자고 제의한다. “군세고 더욱 뜻있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돌아가”(265회)자는 것이다. 결

국 백은주는 이러한 최영호의 청을 받아들여 농촌으로 향한다. 김성희가 “농촌으로 갈 수 있으면 졸업하고는 그리로 갈려고 했어요”(9회)라고 말하는 것도 귀향교육 모티프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의 이런 귀향교육 모티프<sup>23)</sup>는 전후 복구건설이라는 시대적·사회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의 하나로 증권회사를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해 볼 사항이다. 이 작품에서 신현우와 백은주가 다니는 회사가 ‘낙민증권회사’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증권회사가 처음 생긴 것은 1949년 11월이며, 교보증권의 전신인 대한증권이 최초의 증권회사다. 이어서 1953년 11월 대한증권업협회가 발족되었고, 1956년 3월에 대한증권거래소(주식회사)가 개설되었다.<sup>24)</sup>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 증반은 증권시장이 채기반을 잡지 못했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는 ‘국채증권파동’에 관한 언급도 있다.

“사실은 국채증권파동(國債證券波動) 때문에 사에서 수뇌자 회의가 있어서. 그리고 한잔들 했지. 빈속이어서 그랬나봐, 폭 취했군.”(…)

“국채파동 뒷수습이 어떻게 됐어요?”

신현우가 증권회사에 나간 후부터 자에는 그 방면의 상식이 껍이나 풍부해졌다. 신현우에게 들은 것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신문을 열심히 읽었고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에는 지나가던 길에도 실지로 견학한 일도 있었다.

“주동한 회사 몇은 대리인을 취소당할 것 같은데……”

“장이 며칠 못 섰으니 낙민증권 같은 정당한 거래를 하는 회사만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대책을 세운 거지. 오늘 저녁……”

“증권거래소는 그 이상 증자(增資)를 안 해도 되나요?”(153회)

여기에 나오는 ‘국채증권파동’은 1958년 1월 16일에 발생한 ‘국채파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1957년 재무부가 신년도 예산안의 제출과 함께 18억 환에 달하는 제11회 국채발행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된 국채의 발행 여부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책동전(策動戰)으로 번져서 일어난, 우리나라 증권시장

23) 정비석의 신문소설 <낭만열차>(1956)에서도 귀향교육 모티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김동윤, 위의 책, 178~179쪽 참조.

24) 인터넷 자료 <http://kin.naver.com>의 ‘한국증권시장 연표’ 참조.

역사상 처음으로 책동전이 격화되어 마침내 파동으로 이어진 사건이다.<sup>25)</sup> 위의 153회 연재분은 1958년 2월 17일의 지면에 게재된 것이니, 실제 사건과 한 달 간격을 두고 소설의 소재로 활용된 셈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을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어서, 신문소설의 시사성<sup>26)</sup>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증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증권회사를 설정하고 당시 증권을 둘러싼 사건을 민감하게 포착하였음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백은주의 애정행각이 돈과 관련되는 것인 만큼, 증권회사라는 공간은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장치였다고 판단된다.

## V. 안수길 신문소설의 성격

안수길은 신문소설 전반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1950년대 후반에 안수길의 신문소설 연재는 생활의 주된 방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27)</sup> 그가 지녔던 “성실·냉철했던 작가정신”<sup>28)</sup>과 눈앞의 현실적인 집필 환경이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

25) 인터넷 자료 <http://user.chol.com/~polk/sstt.html>의 ‘한국 증권시장의 역사’ 참조.

26) 이 작품에서 “간첩이 계속 적발, 검거되는 기사”(47회)에 대한 언급이나, 비행기 납북(182회) 관련 내용도 신문소설의 시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안수길은 <제2의 청춘> 연재를 마친 직후에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이는 당시 그의 신문소설 연재가 생활의 방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一年 전 동아일보에 <가장행렬(假裝行列)>을 쓰다가 달포 만에 병마로 무참히도 쓰러져 중단의 고배를 마시었던 쓰러린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던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겠다고 처음부터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매었다. 동아일보에서 중단되고 조선일보에서 또 중단된다면 이젠 솟아날 구멍이 없이 중단(中斷)의 작가(作家)로 딱지가 붙어버리겠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신문소설을 써서 식구를 먹여 살릴 길도 그만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창작 여담—<제2의 청춘>을 쓰고 나서」, 앞의 책, 15~16쪽.)

28) 유현중, 『고고했던 학』, 『현대문학』 1977년 6월호, 18쪽.



이다. 그는 <제2의 청춘> 연재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많은 독자에게 읽어줍소사 하는 것이므로 글이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고 같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데에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나 서툰 글발이라 성과가 어떨지 오직 여러분의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sup>29)</sup>

여기서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흥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문소설을 쓰는 작가는 독자의 구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품위를 잃어서도 안 되겠다’고 함으로써 대중과 야합하여 독자의 취향만 따라갈 수는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작가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수길이 신문소설 집필에서 가졌던 태도는 작가주의와 상업주의 사이의 적당한 지점에서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충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것은 반드시 문학성을 중심에 둔 절충과 타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수길은 “신문소설에서 통속성을 띠는 것은 우선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신문소설이 통속성에만 머무르게 될 때 작가는 한낱 이야기꾼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모탈”과 ‘사상성’과 ‘리얼리티’가 확보되어야 문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30)</sup> 우선 문학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통속성의 요소를 가미하는 태도가 신문소설 창작의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았음이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실 <제2의 청춘>에서 보면 안수길은 통속성의 요소를 별로 활용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애정문제를 다루어나간 작품이면서도, 당시 정비석·김말봉·박계주·김광주 등의 신문소설과는 달리, 성(性) 묘사를 통해 독자를 유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눈물에 호소하는 방식 정도가 나타날 뿐이다.

<제2의 청춘>에서 애정의 육체적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은 주목할 부분이다. 작가가 통속성의 주요 요소인 관능성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자애와 신현우가 거의 20년 만에 재회하여 같은 방에서 이틀 동안 지내는 장면

29) 「작자의 말」, 『조선일보』 1957. 9. 15.

30) 안수길, 『통속소설과 순문학』, 『명아주 한 포기』, 319~322쪽.

에서는 물론이요 경주로 애정여행을 가서 일주일 가까이 지내는 부분에서도 육체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신현우와 백은주가 온천으로 밀월여행 떠나서 하룻밤을 보냈는데도 끝내 동침하는 장면을 설정하지 않는다. 촘뽀이며 악녀형 인물인 백은주가 “최 선생 외엔 입술 한번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적 없다”(265회)고 최영호에게 고백하는 부분에 이르면, 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지나치게 결벽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윤필구와 김성희의 포옹과 키스 장면도 다음과 같이 그려질 뿐이다.

윤필구는 팔에 힘을 주어 꺾안았다. 성희에게는 아찔아찔 숨이 막히는 긴 순간이 흘렀다. 황홀한 순간!

그러나 성희는 잠꼬대같이 말하였다.

“놓으세요.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자 윤필구는 소리가 질러질 제 두툼한 입술을 갖다대고 막아버리었다. 이 순간 성희의 의식 속에는 엄택규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젊음과 젊음이 혼연일체, 행복에 도취되고 있을 뿐이었다. 달이 구름 속에서 나왔다. 부드러운 빛을 두 남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는 듯이…….(208회)

청춘 남녀의 포옹은 ‘아찔아찔 숨이 막히는’ ‘황홀한 순간’으로 평이하게 그리고 있으며 뜨거운 키스 장면은 ‘부드러운 달빛’으로 채색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독자를 자극할 만한 묘사라고 볼 수 없다. 안수길은 성행위도 모랄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sup>31)</sup> 이는 관능성의 요소에

31) “특수한 소재, 자극적인 소재, 비정상적인 소재를 다룰 때에는 특히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강렬한 사상과 투철한 ‘모랄’의 조명(照明)이 없이는 특수한 것, 신기한 것의 발굴 전시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대 작가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즐겨 취재하는 경향인 성문제를 다룬 작품에서 가져오기로 하자. 양심의 가책이나 연애감정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인간적인 아름다운 감정이 전연 무시되고 동물적이라기보다 기계적으로 성행위를 행사하는 남녀의 풍속도는 그것이 실재(實在)하는 것이건 가능한 것이건 관계없이 사상과 모랄에 의해 제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무리 순문예지(誌)에 발표되었건 저속한 소설과 함께 독자의 이맛살을 찡그리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성문제 같은 것은 본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이며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율을(律)하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깊은 사상이나 적어도 종래의 인간관계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그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통속성의 요소는 감상성 정도인바, 그것도 유자애의 안타까운 처지에 국한해서 눈물에 호소할 뿐이다. 특히 유자애가 우여곡절 끝에 첫사랑과 재결합하는 데는 성공했으면서도 신현우가 백은주의 유혹에 빠져 들에 따라 좌절하는 부분은 당시 여성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말(백은주에게 결혼해달라고 한 말: 인용자 주)을 한 것이 사실이었군요?”

“농담으로라니까.”

순간 자애는 머리를 숙이었다. 긴장했던 몸에서 푸 하고 기운이 한꺼번에 빠졌다. 앉은 자리에서 방바닥에 자자드는 듯 했다. 뺨에는 눈물이 좌르르 흘러내리었다.

저도 모르게 물러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장난이기를 바랐어요. 당신 말대로 그 애의 장난이기를 바랐어요. 그 애가 나를 끌리기 위해 내게서 뺨을 얻어맞은 복수를 하기 위해 그런 무서운 말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집주소로 속달을 보낸 것이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당신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그 애에게 손을 댄 것도 잘못이었어요. 그 애를 원망하고 욕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그것뿐이어요.”

자애의 말은 나직했다.(228회)

인용문에서 보듯, 안수길의 신문소설에서는 이러한 감상성의 요소도 크게 주목할 정도는 아니다. 어렵게 이혼까지 감행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의 기막힌 사연들을 절절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독자들의 감정의 현을 건드릴 만도 하건만, 평이한 감정 표출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다.<sup>33)</sup>

---

우리 관계를 뒤엎을 만한 힘 있는 철학적 근거가 없이 일시적인 머리에 스치는 생각만으로 소홀히 건드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안수길, 『신기한 소재와 윤리성』, 『명아주 한 포기』, 328~329쪽.)

32) 최경호도 안수길의 소설에 대해 “애정소설조차 ‘성의 변민’이 없거나 ‘정신적인 애정’을 일관된 성격으로 하고 있다.”(『안수길 연구』, 46쪽)고 말한 바 있다.

33) 통속성의 요소를 잘 활용하지 않는 태도는 뒤이어 연재했던 <부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관계인 김춘배와 정선비의 정사 장면도 등장하지도 않고, 김춘배와 아내의 동침 장면은 “가만 계세요. 전등을 끄게요.”(65회) 식으로 지나가 버린다. 미혼모였다가 댄서가 되고 남편과 사별하는 등의 파란만장

한편, 이 소설에서는 신문소설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인 ‘단절기법’<sup>34)</sup>이 잘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6~7회 연재분의 경우에는 한 인물의 대사가 계속되는 도중에 6회분을 끝내고 7회에 이어가는 어색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안수길의 신문소설을 연재하면서 중시한 것은 애정의 갈등구조라고 볼 수 있고, 통속성의 요소나 단절기법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속성의 요소나 단절기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은 염상섭이 『한국일보』에 <미망인>(1954)을 연재할 때에 보인 태도<sup>35)</sup>와 유사하다.

안수길은 궁극적으로 신문소설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통속적인 이야기(素材)를 문학적으로 구상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재미있는 줄거리로 끌고 나가되, 그것이 품위와 더불어 작가의 강력하고 투철한 전제 의식(全題意識)에 집중”됨으로써 “독자가 매일매일, 흥미를 가지고 읽는 동안에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를 작가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문장)과 구성이 세련되어 있어 문학적인 감흥에까지 끌리어 올라가게” 하는 작품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통속소설이면서 예술소설”—이번 <제2의 청춘>은 평소의 나의 이 지론을 실천에 옮겨보려는 의도로 시종하였”다는 작가의 발언에서 보면 그러한 안수길의 신문소설관이 <제2의 청춘>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6)</sup> 이렇게 신문소설에서 통속소설과 예술소설을 동시에 관철하려고 한 그의 태도는 이른바 중간소설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부교> 연재를 예고하는 편집자의 글을 보면, “安壽吉 氏는 長篇 <第二의

한 정선비의 사연이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한 금희의 사연 등을 그리는 데에도 작가가 독자의 눈물을 짜내려고 그다지 고심하지 않는다.

34) 단절기법은 이야기를 적절한 위치에서 절단했다가 다음 호에 그 부분을 잇는 기교를 말한다. 신문 구독자의 유지를 위한 신문사의 요청을 작가가 줄거리 구성의 기교로 발전시키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궁금증을 고조시킨 후 이야기를 절단하여 다음 호로 넘김으로써 구독자가 다음 이야기를 알기 위해 신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이다. 임성래, 『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 대중문학연구회 편,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6), 10~11쪽; 김동윤,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리토피아, 2004), 38~42쪽 참조.

35) 김동윤, 『전후 현실, 그리고 작가와 대중의 거리』, 위의 책, 98~101쪽 참조.

36) 안수길, 『창작 여담—<제2의 청춘>을 쓰고 나서』, 앞의 책, 15쪽.

青春>에서 새로운 新聞小說 스타일과 文學性을 보여주어 정평이 있었”<sup>37)</sup>다고 소개하고 있다. 새로운 신문소설 스타일과 문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반적인 신문소설과 마찬가지로 대중성 있는 주제나 내용을 다루면서도 통속성에 함몰되지 않고 진지하게 문학성을 추구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결국 안수길의 신문소설은 문학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 주제와 내용면에서 대중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청춘>은 그러한 안수길의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안수길 문학 연구에서는 신문소설에 관한 접근이나 서울에서의 삶을 반영한 작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필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안수길이 중앙일간지에 처음으로 연재한 신문소설이면서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제2의 청춘>을 분석해 보았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2의 청춘>은 총횡으로 얽혀진 애정이 각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40대 중년의 사랑이 의미 있게 조명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되며, 20대 젊은이들의 애정 갈등 양상도 중년의 사랑과 결부되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중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복잡하게 뒤얽혀 갈등을 벌이는 애정구도가 작품의 큰 열개인바, 이런 열개가 대중들의 흥미를 끄는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중년세대의 저변에 깔린 고민들에 대한 옹호, 그릇된 인습에 함몰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당당히 추구해야 한다는 중년여성의 주제적 자기 인식 등이 이 작품을 독해하는 중요한 문맥이다. 특히 순종하는 여성상이 아니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을 내세운 점은 1950년대의 상황에서 파격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들로 인해 이 작품이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독자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인기소설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동아일보』, 1959. 7. 12.

셋째, 이 작품에는 할리우드 영화, 댄스바람 등 서구지향의 대중문화가 만연한 도시의 일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계바람의 형상화를 통해서도 물질만능주의의 확산과 여성들의 일상탈출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고, 귀향교육 모티프를 통해서도 전후 복구건설이라는 시대상을 드러내었다. 개설 초창기인 증권회사를 공간으로 설정하고 국채증권과동도 거론한 점은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유용한 장치였다. 이처럼 이 소설은 전후사회의 일상과 세대 등을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문소설의 시사성과 관련이 있다.

넷째, 안수길은 <제2의 청춘>을 연재하면서 애정의 갈등구조는 중시했으나, 통속성의 요소나 단절기법의 활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신문소설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어야 함을 강조한바, 이는 문학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통속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신문소설을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며, <제2의 청춘>에서도 그런 그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안수길의 신문소설은 문학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그 주제와 내용면에서 대중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안수길의 1950년대 연재소설의 성격을 구명하면서 <제2의 청춘> 한 편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그 의의가 다소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한 작품만의 논의를 통해 안수길의 1950년대 신문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2의 청춘>이 안수길의 당시 신문소설에서 가장 대중성을 확보했던 작품이라는 점, <부교>에 대한 논의도 부차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어느 정도는 줄였다고 본다. 다른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안수길 신문소설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안수길 문학의 전체상을 드러내는 작업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안수길, 신문소설, 전후사회, 중년의 사랑, 여성의 자기인식, 대중성, 시사성

## 참고문헌

- 안수길, <제2의 청춘>, 『조선일보』 1957. 9. 17~1958. 6. 14.  
\_\_\_\_\_, <부교>, 『동아일보』 1959. 7. 21~1960. 4. 1.
-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_\_\_\_\_, 『우리 소설의 통속성과 진지성』, 리토피아, 2004.
-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 박명림,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  
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 박명진, 『대중문화의 현실—영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91.
- 박은숙, 『안수길 소설 연구: 만주체험 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 열화당 영상자료실,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1950년대 잡지에 실린 영화 광  
고』, 열화당, 1989.
- 안수길, 『작자의 말』, 『조선일보』 1957. 9. 15.  
\_\_\_\_\_, 『창작 여담—<제2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 8.  
\_\_\_\_\_, 『작자의 말』, 『동아일보』 1959. 7. 12.  
\_\_\_\_\_,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 유현중, 『고고했던 학』, 『현대문학』 1977년 6월호.
- 이상경 외, 『특집 안수길』, 『작가 연구』 제2호, 새미, 1996.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정선, 『‘마스·미디어’로서의 한국영화—영화 기획의 방향과 우리의 반성』, 『  
자유세계』 1958년 4월호.
- 임성래, 『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 대중문학연구회 편, 『신문소설  
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 최경호, 『안수길 연구』, 형설출판사, 1994.
- 기타 인터넷 및 신문자료(각주에 밝힘).

<Abstract>

Research on Ahn Soo-Gil's Newspaper  
Novels in the 1950s  
- Focusing on *The Second Youth*

Kim, Dong-Yun

There have been few approaches to Ahn Soo-gil's newspaper novels and little discussion on his works reflecting life in Seoul. Focusing on this point, the author conducts an analysis of *The Second Youth*(1957~58). It is the first serial newspaper novel, and its spacial background is Seoul. The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ve is in its center of the story. In particular, it is noticeable that light is shed on love of those in their 40s. Entwined with middle-aged people's love, conflict in love experienced by young people in their 20s is depicted in graphic detail. Conflict in love complicatedly entangled between the middle-aged and young generations is the spine of this work, and the main factor drawing public attention.

Second, the important context of this work is the defense for agonies felt by the middle-aged generation, and the self-awareness of middle-aged women that they should pursue true love. It is exceptional that women who actively pursue and obtain love appear in the novel in the 1950s. Thanks to these points, this novel gained popularity, drawing attention especially from female readers.

Third, this novel well reflects urban life flooded with trends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s such as Hollywood movies and dance boom, depicts women's desire to break away from their daily routine and widespread moneyism by visualizing craze for founding loan clubs, and reveals one of



the aspects of post-war capitalism in Korea by setting a fledgling securities company as a spacial background and mentioning the crisis of state bonds. Therefore, this novel effectively reflects post-war life, which is related to the attribute of newspaper novels that focus on current events.

Fourth, Ahn Soo-gil emphasized conflict in love, publishing *The Second Youth* in a serial form. However, he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use of popularity factors or continuing techniques. He stressed that newspaper novels should be artistic as well as popular, which means that popularity should be added while maintaining artistic value. Such an attitude can be found in *The Second Youth*. In conclusion, it is safe to say that Ahn Soo-gil's novels have characteristics to pursue popularity in terms of contents while maintaining artistic value.

Key Words : Ahn Soo-Gil, newspaper novels, post-war society, middle-aged people's love, the self-awareness of women, popularity, focus on current events